



“계속 방송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아뇨, 전 이 일이 더 좋아요”

(주)이미지21 대표 하민희

1 - 첫 만남

가을의 어느날, 이미지21의 대표 하민희씨 인터뷰 랭이 떨어졌다.

"하.민.희. 아~ 그 분." 이름 식자가 낯설지 않았다. 덴탈브리프라는 본지와 같은 계열의 치과신문 '경영스페셜'란에 매주 고정적으로 이미지 경영에 관해 도전적(?)이면서 실득력 있는 글을 연재하는 바로 '그 분'이었기 때문이다.

연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만, 연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 보지 못한 경우 연재물을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하민희씨의 경우 '여성 CEO'에 더하기 'Image'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강해 실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던 터였다.

비즈 우먼이라는 꼭지에 오래 이번에도 여자치과의사이겠거니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례적이긴 했지만, 여성 CEO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기자가 충분히 만나야 하는 사람이 분명했다.

하민희씨와의 첫 만남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잠시대기 후 연결. "네, 하민희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원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인사를 하고 약속 시간을 확인하자, 그녀는 원래 2시로 돼있던 약속을 30분 정도 뒤로 미루면서 "2시까지로 하면 제가 조금 실례를 하게 될까봐서요"라고 덧붙인다.

잠깐 동안의 짧은 몇 마디였지만, 정돈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깔끔한 성격이 단박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자가 15분 정도 실례를 하고 말았지만.

이미지21의 전선아 실장의 친절한 안내로 하민희씨의 사무실에 도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하자 "별요, 저도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라고 해 상대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마주한 하민희씨는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진으로 본 하민희와 실제 하민희는 닮은 듯 하연서도 달랐다.



2 - 일에 대해

먼저 그녀가 아심 차게 이글이 가고 있는 『주』이미지21』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했다.

"이미지21은 홈페이지(www.image21.co.kr)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개인이나 업체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경영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서비스하는 곳"이라고 했다. 상근·비상근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컨설턴트들이 신뢰감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병원의 이미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1997년 서비스 기업 이미지 전략 및 교육전문기관으로 설립해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 교육을 시작했다. 이듬해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에서 '매체 대응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국내 최초 상명대학교 교양학부 '자기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고 지방의회의원 P.I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이른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 및 정치인 프로그램을 개발, 삼성생명, 삼성카드, 박준미장, 블루버드 인터넷 등 기업이미지 컨설팅에 주력하게 됐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전주시 김완주 시장을 이미지 코칭해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의 컨설팅도 해냈다.

전에는 IT 분야의 벤치기업을 대상으로 이미지 서비스를 해왔던 그녀가 얼마 전부터는 병원 이미지 경영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을 보고서였다. 그 병원을 보면 이미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와 맞물려 최근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정책으로 국내 병원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 병원 이미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다.

그녀는 치과 의사들도 이제는 이미지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병원 인테리어 붐으로 고가의 인테리어 작업이 이뤄지고 그 결과 그 비용 부담을 환자들이 떠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다고 말한다. 간단히 수족관 하나를 병원에 두게 돼도 딱딱한 이미지는 많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굳이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니폼 통일이나 칼라의 변화만으로도 진료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 Min-Hoi Martha Ha

이름에서 회사얘기는 이제 접고, 하민희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문서로 작성된 그녀의 프로필을 봤을 때 이름이 앞에 적힌 'Martha'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르다가 뭘까.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법한 이름은 신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름이었다. Martha라는 이름은 남을 돌봐주기 좋아하는 유형의 여인을 대표하는 누구에게든지 현신적인 사람.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 현신적으로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또 이 일일 것이다.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일 지일 여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녹록치 않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워낙 다양한 외모의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더더욱 때면 자신을 고쳐 다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전에 리포터도 하셨고 계속 방송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뇨, 전 이 일이 더 좋아요"라고 푹 부러지게 대답한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 만,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빨리 온다는 것이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소중한게 생각하는지는 앞서 열거한 것처럼 그녀가 이미

지21에서 일궈낸 성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 한 동료들의 힘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한 숟 밥을 먹는 전선아 실장, 최소회 팀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민희씨와 더불어 좋은 인상과 말투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그녀들의 이미지가 곧 (주)이미지21의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민희씨는 1993년 한국 외국어대학 교육대학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9년 HESEBA(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Executive MBA를 취득, 현재는 (주)이미지21 대표이다. 또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오늘"과 경인방송 i-TV 고정 패널, 전자신문과 덴탈브리프 칼럼 연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구민희 / 글 김지영